

# 글로벌 배터리 초격차 선도 위한 토론의 장 열려

‘포항시 국제컨퍼런스’ 개최  
배터리 전략·기술 교류하고  
글로벌 시장 비전·전망 발표

포항시가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기술 교류를 통한 배터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자 지난 14일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배터리 기술 초격차 선도 도시 포항을 주제로 ‘배터리 선도 도시 포항 국제 컨퍼런스 2023(POBATT 2023)’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병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대표, 정왕모 LG에너지솔루션 상무, 박주영 IMERYS 대표,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등 국내외 기업인과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배터리 기술 초격차 선도 도시 포항을 주제로 ‘배터리 선도 도시 포항 국제 컨퍼런스 2023’ 참석자 단체 사진.

이번 컨퍼런스의 기조 강연에 나선 정왕모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소재 및 배터리 기술’이란 주제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전략과 기술을 발표했다. 이어 팔 룬데(Pal Runde) 노르웨이 배터리협회장, 안드레아스 마이어(Andreas Maier) 모로우(Morrow) 배터리 부사장은 노르웨이 배터리 산업을

소개하고 유럽 시장을 통해 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비전과 전망을 발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로저 마틴센 상무참사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020년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왔다”며, “컨퍼런스를 통

해 구축한 탄탄한 네트워크가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전시와 토론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컨퍼런스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 및 운영,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해 왔으며, 지난 7월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령을 받은 바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전무후무한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에 이어 국내 최초로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가 적용되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에도 도전하면서 배터리 허브 도시로의 위상을 다져갈 계획이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밀양시

### 신재생에너지에 국비 7억 확보

밀양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 주민의 에너지 요금 절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억 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정 지역의 공공·주택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한국에너지공단 심층 평가를 거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15억 200만 원 가운데 국비 7억 13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5억 3500만원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태양광 173개소(526kW), 태양열 44개소(264㎡)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전남도, 공익직불금 4592억 확정 전국 지급액 19%... ‘최대 규모’

21.3만명 농업인·법인에 지급  
요건 집중 점검해 부정수급 차단

전남도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592억원을 최종 확정하고 11월 말부터 지급한다.

올해 지급 규모는 전국 지급액 2조 3696억원의 19%로 가장 많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은 사·군을 통해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1만3000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4592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4000명에 1008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2만9000명에 3452억원에 달한다.



서영암농협 친환경벼 재배 집적화단지 전경. /전남도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지급에 앞서 올해 4월부터 6월 초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는 업무협업체를 구성·운영해 직불금 37억원(2만3000명) 감액을 사전에 방지해 정부의 적극행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5000억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

김영록, 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도의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위대한 ‘전라도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면서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비상하겠다”고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초격차 시대를 주도할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첨단분야 벤처·창업기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글로벌 초격차 시대를 주도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데이터·바이오 등 최첨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오전 전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전략산업의 허브 도약’, ‘기후 위기 시대 대한민국 청정에너지 중심지로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세계 속의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조성’, ‘농수축산업의 AI 첨단산업화 매진’,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 경주시, 申 시안시 대표단과 교류협력 논의

내년 자매결연 30주년 행사 준비

주낙영 경주시장이 중국 산시성 시안시 대표단을 예방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주시는 허원취엔 중국 산시성 시안시 당 비서장(상임 부시장급) 일행이 11월 15일 경주시를 찾아 주낙영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 시안은 인구 1300만의 중화문명의 발상지이자 1100여 년 간 중국 13개 왕조의 수도였던 곳으로 ‘장안(長安)’이라는 옛 지명과 진시황릉 병마용어로 잘 알려진 도시다.

경주시와 시안시, 양 도시는 이 같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난 1994년 자매도시 협정을 맺고 경주 신라문화제와 시안 성벽국제마라톤대회 등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두 도시

는 내년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경주시 투자환경 홍보영상 상영과 산업현황 소개 및 시안시 문화관광 및 내륙철도산업 현황 소개 순으로 진행하며 향후 두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와 시안시는 지난 30년 간 돈독한 우정을 쌓으며 한중 양국의 우호 협력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두 도시가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로 새로운 30년의 한중 우호를 내딛자”라고 강조했다.

허원취엔 시안시당 비서장은 “경주시의 APEC 유치 지지를 표명한다”며,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경주시 대표단이 내년에도 시안시를 방문해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 부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557명 공개

누리집·사이버지방세청 게재

부산시는 15일 부산시 누리집과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명 등 총 557명(총 체납액 278억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

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액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부산시 누리집,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 등에 15일 오전 9시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또한,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부산=정병호 기자 metrobusan@

진주시

### 노인일자리 지원에 2.2억 투입

진주시가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2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노인들이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의 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지원 공모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1차 서면심사와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사업 5곳(서울 금천구, 서울 송파구, 경남 진주시, 전남 영암군, 전북 익산시)을 선정했다. /진주(경남)=정병호 기자

영양군

###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오도창 영양군수는 1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농민 실의 증진과 농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3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은 2003년 제정된 지역농업 구조 개선, 농산물 생산·유통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공적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농협중앙회가 주관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지역 특성과 영양군의 당면한 문제를 바로 알고 농촌 위기 극복과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인 결과 경상북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남해군

### 노인회관 준공... 15.7억 투입

남해군은 14일 ‘남해군 노인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남해군 노인회관은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7500만 원(특별교부세 10억,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군비 4억 7500만원)이 투입됐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 건축면적 396.49㎡ 규모로 건립되었다. 1층에는 커뮤니티실과 사무실 및 휴게실이, 2층에는 교육실이 자리 잡았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